



**對중국, 포장재 및 관련설비 수출 유망
경제발전 가속화 따라 소비재 포장 수요 급증**

제9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1996~2000년)중 중국의 포장재 및 관련기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관련 업체의 진출확대가 요망된다.

포장재 및 관련기계산업은 과거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연해지역에서 점차 상해 화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천성 등 내륙지역이 새롭게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내륙지역 경제발전 가속화에 따른

경공업 소비재의 수요 증가에 따라 화장품, 시계, 식품, 주방기기, 사무용품 등의 포장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품목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골판지 박스

현재까지는 일부 품목만 골판지 박스로 포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가전제품, 자전거 등 각종 생활용품을 비롯해 야채, 식품, 과일, 식용유등도 골판지 박스 포장이 보편화될 전망이므로 관련 원부자재 및 인쇄설비 등의 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골판지 박스 제조업체는 약 1만 개사에 달하며 관련 제조기계 생산업체는 30여



개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 생산업체 대부분은 폭 1,400~1,000mm 정도의 얇은 판지 제조 기계만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2천 mm 이하의 판지 및 5~9겹의 고강판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장용 봉지

다양한 품목을 쉽게 포장할 수 있으며, 특히 가루 및 쌀 등의 곡물포장에 적합한 포장용 봉지의 경우 과거 단순 제품포장용에서 신선도를 요하는 제품 보존용 포장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밀봉, 공기충전 포장 등이 가능한 다양한 포장재 및 관련 기계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약품 포장지

중국산 약품은 품질보다 포장이 부실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음에 따라 중국의 제약업체에서는 약품 포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에 따라 약품을 고속, 자동포장 및 다기능 포장 등을 할 수 있는 포장재 수요가 상당폭 증가할 것이다.

▲인스턴트 식품 포장지

현재 라면, 국수, 인스턴트 밥, 죽, 만두 등 인스턴트식품과 노인 및 아동용식품, 스낵류 등의 수요가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즉석식품 포장재료와 기계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스티로폴 포장용기의 경우 환경오염 유발문제 때문에 수년전부터 상해,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는 이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종이 포장으로 이를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일·야채포장지 및 관련 설비

중국 최대의 농업기지인 사천성 정부가 최근 농산물 가공 산업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단순 과일이나 채소의 포장에서 냉동포장, 과일즙 등의 농산물 가공품포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포장재 및 포장기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업체들로서는 포장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내륙지역의 경우 운송경로가 복잡하고 제비용이 많이 든다는 불리함을 감안해 제품수출을 통한 상품인지도 제고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직접 투자진출을 통해 내수시장판로를 개척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차 포장기기 생산설비 긴급 수입 희망

UAE의 Intersun Group 한국 공급업체 찾아

Intersun Group은 UAE를 비롯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14개국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2억5천만달러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견실한 중견회사이다. 이 그룹은 UAE의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에도 포장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차 사업에 진출하면서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에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해 한국의 관련 설비제조업체로부터 수입을 희망하고 있다.

생산설비 계획 담당자인 Taher Goozal씨는 "KORTA 두바이 무역관이 내방해 한국의 적격업체와 빠른 시일안에 구체적인 상담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입하려는 생산설비는 아래와 같다. 관심업체는 두바이 무역관이나 Intersun Group에 직접 연락하면 된다.



- Roller conveyor for cases
 - Length : 7,350mm
 - Effective width : 900mm
 - Incl. Roller conveyor of the tipping device
 - Length : 650mm
 - Effective width : 900mm
- Tipping device
- Flat belt conveyor
 - With magnetic drum seperator
 - Type BFS 600
 - Belt width : 600mm
 - Centre distance : 8,500mm
 - Inclining angle : 42(Degrees)

노르웨이 드람멘市, 공공구매 추진
쓰레기 수거용 플라스틱백 160만장

오슬로시 인근에 소재한 드람멘시가 올해 사용할 쓰레기 수거용 플라스틱백 약 160만장의 공공구매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되고 있다.

이번 발주되는 쓰레기 수거용백은 드람멘시를 비롯해 인근 네드레 코문, Lier 코문 등 공공단체가 구매할 100 l 들이 120만장, 기타 160 l, 200 l 들이 40만장정도의 플라스틱 백인데, 그중 구매규모가 제일 큰 드람멘시가 중심이 돼 구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요 스펙을 보면 구매규모가 제일 큰 100 l 들이 플라스틱 백은 규격이 가로 720mm, 세로 1,120mm로 두께는 0.065mm, 포장은 250장을

한 단위로 하도록 돼 있다.

한편 입찰방식으로 공급업체가 결정될 이 공공구매의 응찰기한은 4월 14일로, 관심있는 업체는 드람멘시로 부터 구매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을 받은 Interconsult사나 드람멘시의 다음 주소로 접촉을 하면 구체적인 사항 및 입찰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 Drammen시 연락처
 - Engene 1,3008 Drammen Norway
 - Tel : 47)32 80 66 10
 - Fax : 47)32 80 62 55
 - Contact : Mr. Kurt Holmstad
- Interconsult AS(구매대행업체)
 - P.O.Box 6412 Etterstad, 0605 Oslo
 - Tel : 47)22 63 59 00
 - Fax : 47)22 63 59 90
 - Contact : Mr. Jorgen Saxegaard
 - Mr. Jon Trandem

日, 획기적 알루미늄 분리기 개발
네오지움 자석 이용

오사카 마그네트 를 제작소의 네오지움 자석을 이용한 알루미늄 선별분류기인 '알루미늄 세퍼레이터 ALS' 를 개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시스템은 종래의 자력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철이나 비철 등 2종의 선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깡통은 플라스틱이나 병으로 동시에 분류돼 이를 분리하려면 인력이 많이 소요됐으나 이와같은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 기계는 벨트의 앞부분에 장착된 강력한 영구자석을 보유한 헤드드럼에 전류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으로, 철, 플라스틱, 알루미늄의 3 종류를 동시에 분류할 수 있다.

기계의 특징은 첫째, 동급 제품에 비해 자력은 약 3배이고, 강력한 반발력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둘째, 컨베이어 각도 속도를 변하게 하면서도 회수율은 저하되지 않고 자력 분포도 균일하게 하며, 셋째, 마그네트의 강력한 작용으로 하루 처리능력을 시간당 1t으로 8시간 가동이 가능한 점이며, 넷째, 알루미늄 깡통도 분쇄기 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선별이 용이해 정도, 회수율, 순도 모두 종래의 페라이트 마그네트에 비해 90%이상 높다는 점이다.

다섯째, 네오지움 자석 채용으로 에너지절약을 실현하고 헤드드럼 회전의 소형모터의 전력만으로 운전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한 점, 여섯째, 벨트 교환도 전부(前部) 해체만으로 벨트조정이나 윤활유 주유도 간단한 점, 일곱째, 기동시의 과전류를 방지하기 위해 스톱 스타터를 설치하는 등 안전면에도 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용도로서는 대형쓰레기 분쇄라인, 알루미늄 주물가루처리라인, 알루미늄깡통의 선별 등이다. 이 회사에서는 장기간 축척해온 마그네틱 기술로 소비자의 수요에 대처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오만인쇄업체, 한국산 인쇄기계 수입 희망
수입희망 가격 15만 6천~20만 8천弗

오만의 유력 인쇄업체중 하나인 Al-Nahda

Printing Press LLC가 자사의 생산설비 확장에 필요한 인쇄기계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KOTRA무스카트 스포크에 전해왔다.

수입희망 인쇄기계는 스위스의 Muller Martini사가 생산하는 Printing Press와 유사한 규격인데, 수입희망 가격은 15만6천~20만8천달러(CIF Muscat)이다.

Ziyad Talib 구매담당 이사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독일의 Roland, Heidelberg 등으로부터 인쇄기계를 수입해 왔는데, 한국산 인쇄기계가 독일산에 비해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수입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상당수의 인쇄업체들이 수입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선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한국산 인쇄기계의 오만시장개척 및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슬로베니아, 아시아식품 인식 높아져
한국산 라면·식혜·과자류 등 진출 유망

슬로베니아에도 한국식품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양식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는 현지 수입상에 따르면, 동양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현재까지 진출이 전무한 한국식품의 소개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슬로베니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양식품은 주로 중국과 태국산인데, 참기름·고추기



름·간장 등의 양념류와 당면, 쌀국수와 같은 분식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 슬로베니아 전역에 20여개로 급격히 늘어난 중국식당들의 성업에 힘입어 동양식품에 대한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성공가능한 식품은 이미 서양인들에게 널리 소개돼 있는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과 식혜 등과 같은 비알코올성 음료 및 이미 이탈리아산이 판매되고 있는 게맛살 등이며 과자류의 진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한국식품 진출시 가장 큰 문제점은 유통기간이다. 구유고권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경우 인구 200만에 불과한 소규모 시장으로 초기단계에는 한국으로부터 직수입이 어려우므로 독일 등에 소재한 한국식품 수입상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입시점에서 유통기간이 이미 2~3개월이상 경과해 버리기 때문에 식품의 유통기한이 1년일 경우 현지 유통기간은 6~7개월에 불과해 초기에는 수입상에게 크게 부담이 될 것이다.

라벨 부착에도 어려움이 있다. 라면과 같이 비교적 부피가 큰 품목의 경우 수입상이 직접 스티커를 부착해 공급할 수 있으나 수량이 많아질 경우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과자류와 같이 부피가 작아 사실상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포장지상에 현지어를 직접 인쇄해 생산해야 하므로 소량수출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급할 각 지역의 언어를 같이 인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짐바브웨, 플라스틱 레진 수입선 전환모색
원자재 관세 인하·완제품 인상에 따라

짐바브웨 재무부가 자국산업 보호 및 내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원자재 관세인하 및 완제품 관세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짐바브웨내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생산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 원료인 PE, PP, PVC 등 수지에 대한 수입수요가 동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업계의 관심제도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주요 공급국이던 유럽국가 일부의 공급선들이 High-Tech Engineering Plastics생산에 전력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해오던 상당수의 수입상들이 한국으로 수입선 전환을 모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짐바브웨의 플라스틱 원료 시장규모는 연간 약 6천만달러로 추정돼 왔으나, 이번 관세율 인하조치 이후 10% 이상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현재 한국산은 매년 약 400만달러 수출을 기록, 시장점유율 7~8%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KORTA 하라네 스포크는 수입선 전환을 모색 중인 유럽산 수입상의 방한을 추진중이다.

헝가리, 폴리에틸렌포일 판매 유망
현지산 품질낮아 거의 수입사용

헝가리는 구 사회주의권 경제통합계획의 일



환인 컴플렉스 프로그램에 의거, 70년대 중반부터 Olefine 프로그램으로 PVC,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원료의 대량 생산기반을 갖추었다. 헝가리는 Olefine Ring의 연결을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와 CIS연합국과의 협정을 갱신해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다.

헝가리는 시장경제로 전환했던 88년의 플라스틱제품 생산량이 43만에 달했으나, 서방기업들과의 경쟁에 뒤져 생산량이 점차 감소됐다. 92년에는 88년 대비 37.2%가 감소한 27만을 기록했다. 이후 헝가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95년 생산량은 92년 대비 25.6%가 증가한 33만 9천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헝가리 Pla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Co. 가 조사한 95년 주요 제품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포일류 10만, 튜브 4만 3천, 몰드류 4만 2천, 플라스틱관 3만 3천, 플레이트류가 1만이 생산됐고, 기타 플라스틱제품은 10만정도이다.

헝가리 플라스틱 생산제품 중 HS Code 3920.10류인 포일류가 95년 30.2%의 생산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플레이트류는 3%를 차지해 생산비중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95년 LDPE생산량 7만중 포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6만 1천에 달했다. 헝가리의 LDPE생산량이 88년 이후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이유는 LDPE포일중에 농업용이 헝가리 농산물 수요의 감소와 정부농업보조금 축소로 인해 그 수요가 축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전반적인 경기하락으로 LDPE가 일부 사용되는 우유 봉지, 쇼핑백에 대한 수요의 감소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95년 HDPE는 총 4만 3천이 생산됐고 이 중 포일류는 3,600t정

도의 생산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이 LDPE제품 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이처럼 헝가리는 HS Code 3920.10류를 폭 넓게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헝가리 최대 플라스틱 제조회사는 TVK Rt.로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PVC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플라스틱 완제품인 PE포일도 생산하고 있다. 95년 이 회사의 농업용 PE포일 생산은 물량기준 1만 6천, 금액기준 1,800달러를 기록했으며, 포장용 PE포일 생산은 물량기준 7천, 금액기준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 회사의 95년 총생산 능력은 8만5천 정도로 금액은 5,700만달러로 이 중 38%가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경쟁력 약화로 인해 생산용량의 49%만을 가동하고 있다.

TVK이외에 폴리에틸렌 포일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다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제품의 실수요자 및 도매상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VK 이외의 대기업은 Gorsium Muanyagipari Kft, Kobusch Nordenia(독일기업), Miniplast 및 Ongropack 등이 있다. 헝가리는 자산품 중 90%는 내수용으로, 10%는 수출용으로 생산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독일(46%), 폴란드(17%), 기타 오스트리아, 그리스, 화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으로 수출 비중이 각각 7~8% 정도이다. 하지만 헝가리의 플라스틱 제품의 수출은 원료가 비중이 월등히 높고, 완제품류인 폴리에틸렌 포일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헝가리 폴리에틸렌 포일의 연간 수요량은 11만 정도로 이중 90% 이상을 헝가리 자체 생



산품이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품으로 충당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화란 등 인근 서구국가들로 이 국가들은 주로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포일 제조기계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들 기계의 사양과 품질에 맞는 폴리에틸렌 포일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폴리에틸렌 포일의 전반적인 수입추세는 93년 4,380t, 851만2천달러에서 95년 7,175t, 2,038만9천달러로 수입증가율이 금액기준 140% 정도로 급신장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자체 생산품의 수요 충족도도 매우 높은 편이지만 90년 전후로 헝가리 투자 외국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해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96년에는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이 약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폴리에틸렌 포일의 실요자들은 식품가공기업들인 Pick, Stollwerk, Egberts 등인 외국 투자기업들로 이들은 식품포장재로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다. 인쇄업체들인 Petofi Nyomda, Grafika 등도 포장재로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고 기타 플라스틱 완제품 및 전자부품 회사들도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에틸렌 포일의 수요 및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식품, 담배,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을 조달하고 있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수출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원인이 있으며, 포장재 수요도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낮은 편으로 이들 국가제품은 헝가리 자체 생산품에 비해 가격경쟁력도 없고,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품질상의 이점도 없기 때문

(수입실적)

(단위 : US\$천)

국 별	1993	1994	1995
독 일	1,807	3,658	7,036
이탈리아	1,264	1,728	3,725
오스트리아	2,537	1,878	3,246
화 란	678	1,023	1,074
벨기에	228	500	1,066
미 국	56	622	517
스웨덴	363	247	328
핀란드	1,195	430	199
한 국	-	125	55
총 계	8,512	11,832	20,389

(자료 : 헝가리 상공부 무역통계)

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운송비 부담 및 낮은 제품이미지 등으로 시장진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근 헝가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외국 투자기업들은 헝가리산 폴리에틸렌 포일의 품질수준이 낮아 거의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품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 투자기업들을 상대로 마케팅활동을 펼칠 경우 한국제품의 헝가리시장 진출은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헝가리 폴리에틸렌 포일(HS 3920.10류)에 대한 수입관세는 GSP특혜대상국 PE포일 및 Agro포일에 24%, 기타 제품에 5%가 적용된다. EU 및 EFTA회원국에게는 PE포일 및 Agro포일에 7.8%, 기타 제품에 5.3%가 적용되고,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 주요 CEFTA(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회원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95년 3월부터 징수된 수입 과징금이 현재 4%로 낮아져 징수되고 있으나 이는 점차 인하돼 97년 7월부터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여기에 통세세가 3%, 수입검사세가 2%가 부



과되고 판매시 간접세로 부가세가 25% 포함된다.

폴리에틸렌 포일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또는 안전규격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고, 쿼터 라이선스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헝가리 환경보호법 Act No. LVI 1905에 의거, 환경에 해로운 제품은 폐품 수집 및 재생을 위해 일정량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플라스틱 포장재도 이러한 제품에 해당된다. 따라서 폴리에틸렌 포일로 제작된 포장재는 1kg당 Ft. 10(약 6센트)씩 부과하고 있다.

국내 생산품일 경우는 제품수요자가 부담하지만 수입품일 경우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헝가리 폴리에틸렌 포일의 유통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된다. 하나는 일반 도매상과 소매상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헝가리 생산업체들이 주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 헝가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고, 제품의 품질은 낮지만 현지 소득수준에 가장 적합하게 공급하고 있어 수입품의 유통진입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유통방식은 실수요자 그룹을 상대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들 실수요자들은 제품의 포장재로 폴리에틸렌 포일을 구매하고 있는데 자사 생산제품의 포장을 위한 특수 포장기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헝가리산 중저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고품질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실수요자들은 대량구매를 하지만 그 수가 적어 이들을 상대로 한 공급자들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한 편이다.

주요 실수요자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커피, 소금, 설탕 등의 식품 포장재로 폴리에틸렌 포일을 구매하고 있는 Compact Douwe

Egbests Rt.를 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식품을 서구시장 및 헝가리 내수시장에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어 포장재의 구매량이 매우 큰 회사로 평가된다.

자동차부품 포장재 포일을 구매하고 있는 Happich Pemu사도 수출 및 내수시장제품 포장재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있다. 기타 담배회사인 Egri Dohanygyar와 헝가리 최대 전구 제조회사인 Tungsram도 제품 포장재로 폴리에틸렌 포일을 구매하는 실수요자들에 해당한다.

이들 실수요자들의 구매조건으로 가장 중시하는 경쟁요인은 품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실수요자들은 자사의 생산제품 포장과 가공기계의 필수적인 특별 사양 및 품질조건을 비교 검토하고 가격은 이 사양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수출상들의 제시가격에 따라 우위를 갖는 제품을 수입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품질조건을 가격조건보다 더 우선시한다.

한국 수출업체들은 아직 대형가리 폴리에틸렌 포일류 수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그 주요 요인중 하나가 서유럽 공급자들의 기득권과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실수요자들은 소량으로 구매하지 않고 대량구매에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한다는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 일단 거래를 트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헝가리의 실수요업체들은 기술적인 문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업체들은 헝가리 시장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속적인 시장공략을 한다. 시장진입 및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헝가리



는 플라스틱 산업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과의 기술 및 자본 합작투자를 통해 헝가리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거대시장인 EU 및 동구시장에 까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호주 Toll Packaging사, 플라스틱 포장재 구매희망
유통업체용 병포장박스 연간 약 1,500, 여타 포장재 수출도 가능

호주 빅토리아주 소재 Toll Packaging사는 그동안 국내에서 조달해 온 플라스틱 박스포장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생산이 활발한 우리나라를 최우선 공급대상국가로 생각하고 KOTRA 멜버른 스포크에 수입가능성을 문의해왔다.

Toll Packaging사는 현재 빅토리아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도요타와 포드 자동차의 부품 포장재 공급을 전담하고 있어 조업기반이 안정적인 상황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병 포장박스의 대한 구매가 성공적일 경우 여타 플라스틱 포장재 분야의 구매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구매를 희망하는 제품은 9개들이 병 포장박스로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CAD (Computer Aided Design)에 따라 단순히 제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들 병 포장박스는 소비자들이 맥주 등을 구입할 때 9개들이 한 개 박스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포장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재할용품의 일환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나이지리아, 페놀라미네이팅 사용 점차 확산
한국산 품질 양호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무관심

나이지리아의 페놀라미네이팅(PLF)수요규모는 연간 70만달러 정도로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정부수요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이지리아에는 현재 이 제품의 생산이 전무해 수요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현지 바이어들이 주로 찾고있는 제품은 110, 125, 175 Micro-mils thickness film이며 규격은 70×110mm, 220×308mm이다.

이 제품의 주요 용도는 증명서, 신분증, 청사진, 카탈로그, 소형 캘린더 등이며 바이어에 따라 주문규격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자는 바이어의 요구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500개 단위로 포장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투명한 색상이 선호되고 있다.

이 제품은 연중 판매되어 특별한 판매시즌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7~9월 졸업시즌의 경우 졸업 및 취직수요로 인한 수요증가가 있다.

나이지리아 통계청에서 입수한 최신 수입통계 자료에 따르면 95년 나이지리아의 페놀라미네이팅 수입실적은 금액상으로 69만 7천달러 규모로 기록되고 있으나 정확한 수입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무리가 있다.

이는 수입시 상당규모가 관세회피를 위한 언더벨류 또는 밀수 등 편법으로 통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지리아의 수입 대상국과 연도별



수입추세를 감안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는 부여될 수 있을 것이다.

95년 국별 수입실적을 보면 화란으로부터 수입된 실적이 54만 6천달러로 금액상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으며 영국과 우리나라가 각각 6만 7천달러를 수출해 전체시장의 약 10%를 차지했다.

86년 수입허가제 폐지이후 페놀라미네이팅을 포함, 특정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는 없으며 누구나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품 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타 부과금으로 항구시설 현대화 부담금 7%와 부가세 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제품은 미국·영국·벨기에산 등인데 미국산이 현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미국산의 진출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선데다 미국산 라미네이팅 기계가 다량 수입되어 있어 필름도 이에 맞는 제품이 수입되기 때문이다.

한국산은 아직 다량 수입되지 않았으나 바이어는 향후 진출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진출하고 있는 한국산의 대부분이 여타 국가제품에 비해 품질에 커다란 차이가 없고 가격경쟁력이 양호한 것으로 현지에서 평가되고 있으나 한국산을 소개하기 위한 판촉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시장 진출의 확대여부는 우리업체가 현지 마케팅활동을 어떻게 적절히 전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관련분야의 수출관계자들은 수시로 해외출장을 실시하고 현장경험을 살려 마케팅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하며 현지출장이 정해지면 기존 바이어만 만나고 돌아갈 것

(수입실적)

(단위 : US\$ 천)

국 별	1993	1994	1995
이탈리아	5,827	6,614	16,607
화란	359,116	386,378	546,174
영국	34,586	44,806	67,211
프랑스	32,754	36,386	-
캐나다	36,373	37,755	-
총 계	511,410	561,030	697,513

(자료 : 나이지리아 연방 통계청)

이 아니라 해당 무역관 등에 여해 상담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해 가능한 많은 바이어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스스포크는 수많은 인콰이어리 처리를 통해 현지의 우수한 수입상 명단을 확보하고 있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 신규 수입상의 발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라고스스포크를 통해 수입상을 접촉하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라미네이팅 필름과 라미네이팅 기계, 액세서리를 일체로 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부처나 기관에 대한 대규모 납품을 위해 유력한 에이전트의 지정이 필요하다.

EU경제 항추 소폭 회복
집행위 보고서 올 2.2%...98년 3.8%성장

올해 EU경제가 침체에서 소폭 회복될 것이며 98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은 성장을 보여 EU경제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EU 집행위는 97년 EU 연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96년 EU경제가 전년보다 낮은 1.6%의 성장에 그쳤으나 올해부터 회복세를 보



여 순조로운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EU 실업률은 10% 이상선을 계속 유지할 전망이다.

연례보고서에 나타난 97년 및 98년 경제전망은 다음과 같다.

▲경제전망

96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여온 EU 경제가 97년과 98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지속, 96년의 1.6%에 비해 97년 2.2%, 98년 2.8%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수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96년 4%에서 98년 6.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경제회복에 따라 소비도 증가해 재고수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본재에 대한 투자가 97년 5%, 98년 7%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고용

95년 0.5%, 96년 0.1%의 성장률을 보였던 신규고용창출이 97년 0.6%, 98년 0.9%의 성장률을 기록, 고용기회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95, 96년 모두 10.9%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97년 10.8%, 98년 10.4%로 미미한 감소만을 보일 것이며, 다만 영구과 화란에서는 실업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EU 집행위는 90년대 상반기의 EU의 경기침체는 80년대말과 90년대초의 인플레이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올해부터는 회복세를 벗어나 순조로운 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럽경제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비용의 융통성과 고용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코라벨 향후 국제환경 이슈
외국인 투자·환경문제도 관심 대상**

UN 무역개발위(UNCTAD)가 UN 환경위에 보고할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향후 무역과 환경관련 논의에서 에코라벨(Eco-Labels) 및 외국인 투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UN 환경위는 UNCTAD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6월 23~27일간 개최되는 UN 총회에서 지난 92년 기구환경회의 이후 환경과 개발문제에 관한 진전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UNCTAD는 보고서 초안에서 교역, 환경, 개발정책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이며 환경보호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환경을 이유로 한 시장접근 제한 여부는 수출국의 환경표준이 아니라 수입국의 환경표준 또는 국제 환경조약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국가차원에서도 자국의 통상, 환경 및 개발담당 행정부서간의 정책조화에 노력을 함께 쏟아야 하며 나아가 경제발전 노력과 함께 오염완화 및 효율적 환경관리를 위한 정부와 업계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에코라벨은 지난 92년 환경회의 당시에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이해됐으나 이후 무역문제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많은 품목들이 에코라벨을 부착하고 있는 데다가 92년 이후 에코라벨이 완제품 자체에 대해서만 아니라 공정 및 제조 과정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WTO 무역환경위원회에서도 공정 및 제조과정에서의 환경보호문제까지 포함하는 제품 전과정 평가에 근거한 에코라벨을 환경관련 국제무역협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논쟁거리가 되어있다.

한편 외국인 투자와 환경보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해당국 환경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선진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해당국의 높은 환경보호수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 투자의 큰 몫을 차지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국의 요구 수준보다 높은 환경표준 및 환경관리정책을 채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PVC수지 수출 청신호

반덤핑국 한국산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

호주 제조업체들의 덤핑제소 영향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중단상태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PVC수지 대호주 수출이 덤핑문제가 일단락 됨

에 따라 금년부터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주 반덤핑국은 공고를 통해 한국 및 벨기에산 PVC 수지(HS 3904.10.000)에 대해 덤핑수출은 인정되나 덤핑수출이 호주 산업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양국산 PVC수지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측 피소업체는 한화화학과 LG화학의 2개사로 호주의 ICI Operations PTY Ltd. 및 Auseon Ltd.가 94년 7월 1일 이후 수입분에 대해 덤핑제소를 함에 따라 96년 3월 27일부터 시작된 호주 관세청의 덤핑예비조사 결과 96년 7월 5일자로 덤핑 긍정판정 결정으로 7월 6일 이후 수입분부터 덤핑잠정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호주에는 PVC수지 제품 생산업체가 제조업체인 ICI와 Auseon의 2개사 뿐으로 이 회사는 상습적으로 화학제품 수입에 대해 덤핑제소를 남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산 PVC수지의 경우 92년 4월 반덤핑국으로부터 덤핑긍정 판정을 받았으나 시장점유율이 낮아 반덤핑 관세는 부과받지 않은 대신 가격 및 수출량 동결조치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93년말에 덤핑제소를 다시 받아 94년 4월 11일에 덤핑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들 호주 생산업체는 이전에도 5차례에 걸쳐 PVC수지 수출국 거의 전체를 덤핑제소해 91년 브라질, 미국, 멕시코가, 92년에는 캐나다, 프랑스, 일본, 사우디, 노르웨이, 중국, 태국이 덤핑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호주의 PVC수지 수입은 90년대들어 주요 수출국에 대한 지속적인 덤핑판정의 영향으로 부진을 보여왔으나, 94년 하반기 이후 수입이



회복되어 94/95회계연도에는 93/94년도보다 무려 913.2%나 급증한 A \$6,733만8천에 달했으나, 95년 하반기이후 국내수요의 부진으로 다시 감소를 보여 95/96회계연도 수입이 전년 대비 67.0%나 급감한 A \$2,219만 6천에 머무는 부진을 보였다.

92/93년도에 A \$257만 7천에 달하는 등 호조를 보여왔던 우리나라의 대호주 PVC수지 수출은 92년 이후 계속되는 덤핑제소 등의 영향으로 거의 중단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94년 4월의 덤핑 무혐의 판정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95년 하반기부터는 최대의 공급국으로 부상하는 등 호주의 수입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와같이 호조를 보였던 PVC수출은 작년도 덤핑공정판정 이후 전면 중단되어 96년 하반기에는 대호주 수출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번 반덤핑조치 철회가 PVC수지 대호주 수출회복에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투자 현지관습 고려해야성공
독일 자국 중소기업 경로 진출애로 조사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지가 다년간에 걸쳐 중국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독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 투자진출 애로사항에서 중국 현지 상관습을 고려해야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간에는 서로 조율이 맞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앙정부는 꾸준히 시장자유화를 위한 법률을 공포했으나 지방정부는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지방정부의 당서기는 기업을 경쟁에서 보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권한도 갖고 있다.

따라서 대중 투자가 성공하려면 지방정부 관리들과의 친밀한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결정권자들을 자국으로 초청할 것을 권한다.

무엇보다 정보를 입수하는데에는 중요 결정권자들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다.

독일에서는 완벽한 계약서가 기업의 안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통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빈틈 없는 계약서보다는 신뢰할 만한 인물을 파트너로 물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국 파트너들은 계약서를 무시하고 지적재산권을 무더기로 복사하며, 단기적으로 이익을 챙긴 후에 파트너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 독일기업들은 '해적행위'라고 표현하는데, 특히 독일기업의 노하우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악용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중국투자시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중국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원하면 먼저 파트너와 관계없이 완벽한 자체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막연한 낙관주의는 금물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측파트너들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해 놓고 투자파트너를 찾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자체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에 대해 기업내부에서 토론하는 것이 요청된다. 여기에 고려될 사항은 중국의



특수문제인 전문가 부족, 금융적 위험, 높은 여행비용 등이다.

사무처리에 있어서 중국인은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독일인과는 상이해 독일기업들이 많은 고충을 입었다. 특히 중국인들은 제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 예를 들어 10년이상된 팩스기를 2,500달러 이상으로 평가하는 중국인도 허다하다.

중국인은 또한 시간개념에 부정확하다. 서류처리나 제품납품 등에서 시간의 경과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합작기업의 중국파트너들은 종종 계약을 어기고 독일기업의 노하우를 이용해 불법복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와같은 경우 대금지불을 거부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효력이 높지 않다.

계약을 어기는 파트너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파트너관계를 단절하고 투자를 옮기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중국 파트너들은 이와같은 기미가 보이면 계약을 준수하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방글라데시, 對韓 접착테이프 수입희망
연 120만 弗 규모, 한국산 가격 다소비싸나 품질 월등

방글라데시의 Shovon Poly Band Mfg. Co., Ltd.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롤 형태의 접착테이프(Self-Adhesive Tape in rolls 또는 OPP Gum Tape라고 함)를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접착테이프를 롤 형태로 수

입해 자신의 공장에서 커팅해 현지 업체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동안 대만에서 이 제품을 수입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한국산 접착테이프를 요구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선을 한국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전무이사인 Shamsul Haque씨가 대카 무역관을 방문해 상담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수입물량은 20ft 컨테이너 36개 정도이며, 금액으로는 12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은 수출용 의류제조업체들인데 접착테이프를 수출용 의류박스포장에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접착테이프가 수출용 의류포장을 위해 주로 사용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수출용 포장용 테이프를 위해 수입되는 접착테이프에는 수출용 원자재로 간주해 수입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접착테이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필름(테이프)제조, 코팅 및 접착액 첨가, 규격별 커팅 등 3단계 공정을 거쳐야 한다. 방글라데시는 이처럼 공정이 복잡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 접착테이프 제조업체가 없고 접착테이프를 Jumbo Roll형태로 수입해 현지에서 단지 규격에 맞게 커팅해 판매하는 업체만이 몇개 있을 뿐이다.

Shovon Poly Band사는 작년말 한국의 모 무역회사를 통해 이 제품을 처음으로 수입했으나 품질이 L/C개설전 제공된 샘플과 너무 차이나거나 현재 클레임을 제기중에 있다. 이에따라 무역업체와는 더이상 거래를 원치 않으며 반드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한국으로부터 폴리밴드제조



를 위한 원자재 및 정수기, 가정용 전기쿠커 등 다양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Shamsul Haque씨는 SITRA '94 방글라데시 참관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후 한국업체들과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접착용 테이프를 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로부터 Jumbo Roll형태로 수입하고 있는데 Shovon Poly Band사에 따르면 한국산 가격이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나 품질은 훨씬 우수하다고 한다.

독일포장협회
환경친화·재생포장재질 표기 거부

독일포장협회는 유럽연합집행위가 제안한 식료품포장용기에 소비자를 상대로 '어떠한 포장재질이 더욱 환경친화적임과 동시에 재생가능한 포장재질임을 알리고 또 재생가능한 포장재료가 더욱 환경에 부합된다'는 표기를 하자는 안전에 대해 여러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부적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독일포장업계는 현재 유럽의 소비자가 식품이나 음료수의 빈병 회수시 병값을 되돌려 받고 있기 때문에 포장용기에 재생이 가능하다는 별도의 표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재생가능한 포장용기가 모두 절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이라는 인식을 심는 것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유의 일회용 특수재질포장용기는 재생용기보다 훨씬 환경친화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독일포장협회는 아울러 포장업체나 식품업체의 입장도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어느 특수 포장용기가 더욱 자연친화적이라든가 재생가능한 포장용기가 일화용보다 더욱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은 각 포장업체나 식품업체의 각기 다른 포장용기형태와 재생, 운반, 회수 시스템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을 유럽연합 집행위에 전달했다.

독일을 상대로 사전 조율성이 강한 이러한 안전을 제시하고 있는 유럽연합집행위의 이같은 행보는 타 유럽연합회원국보다 식료품 포장에 대한 재생포장용기를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는 곳일의 식품위생법의 완화를 겨냥하고 있다고 일부는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포장협회는 유럽연합집행위의 포장준칙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 포장재질의 용량 및 크기의 의무화'에 관한 규정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식음료 포장용기의 재활용에 대한 가치평가는 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종적인 쓰레기 감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과 소비자의 안전과 식음료의 위생안전을 고려해 최소한의 포장재질의 용량과 크기를 규정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벼운 포장용기가 개발되도록 행정과 기술적인 조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이고 국제적인 추세에 있는 각종 포장재질의 안전성과 관련된 식품음료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은 의무만 있으면 별다른 경비의 소요없이도 효율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K]